

세계정당나라의 원상적인 공포정도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당첨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dy.co.kr 0801-320-7700



박성화호 오늘 '올림픽 모의고사'

# “ 너희들 중 단 한명만 베이징 간다 ”

신영록

서동현

양동현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과테말라를 상대로 엔트리 확정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성화호는 16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과테말라 A대표팀과 친선 경기(KBS 2TV 중계)를 갖는다. 과테말라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04위로 한국(53위)보다 낮고, 역대 전적은 1승1무1패다.

올림픽 본선 조별리그 상대인 온두라스를 대비해 마련된 이번 경기는 최종엔트리 합류를 위한 예비 태극전사들의 마지막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23일까지 최종엔트리 18명과 예비명단 4명을 제출해야 하는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이번 과테말라전을 토대로 최종엔트리를 결정해 21일부터는 정예멤버로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전방 공격수 남은 한자리 놓고 마지막 시험대 될 듯

오후 8시 과테말라와 평가전...23일 최종 엔트리 제출

박 감독은 "이번 과테말라전에서는 올림픽 예선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된 선수 외에 아직 정하지 못한 자리에 들어갈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기용할 생각이다"며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명단에 세 명의 공격수를 뽑을 예정인 박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의 경우 신뢰가 두터운 박주영(서울)과 이근호(대구)는 과테말라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대신 서동현과 신영록(이상 수

원), 양동현(울산) 등 남은 세 명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된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24세 이상 와일드카드로 낙점한 김정우(성남)를 비롯한 기성용(서울)이 최종명단에 들 것으로 유력하다. 소속팀 경기중 오른 허벅지를 다쳐 지난 7일 대표팀 소집 후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백지훈(수원)과 발목 인대가 부분 파열된 오장은(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몸 상태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백지훈과 오장은의 컨디션에 따라 남은 한 장의

와일드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박 감독은 이들의 경기를 보고 미드필더진 운용 구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와일드카드 김정우가 올림픽대표 멤버들과 실전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선발 라인업은 김정우-기성용 조합으로 꾸린 뒤 상황에 따라 백지훈과 오장을 교체 투입할 수도 있다.

중앙수비수 김진규(서울)와 강민수(전북)를 축으로 좌·우 풀백에 최철순(전북), 김창수(부산) 등 주전급 멤버들이 자리 잡은 수비 라인의 경우 이요한(전북), 김근환(경희대), 유원일(제주) 등이 박 감독의 마지막 난도장을 기다리고 있다.

골키퍼는 정성룡(성남)의 베이징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송유걸(인천)과 양동원(대전)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최종 승부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LPGA 스테이트팜 내일 개막

# 한국 남자들 정상 재도전

오초아·소렌스탐 불참

한국자매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LPGA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 연승 행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출격한다.

화려했던 6월을 보낸 LPGA 투어 한국자매들은 3주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 주 제이미파 오웬스 클래식에서 플라 크리머(미국)에 막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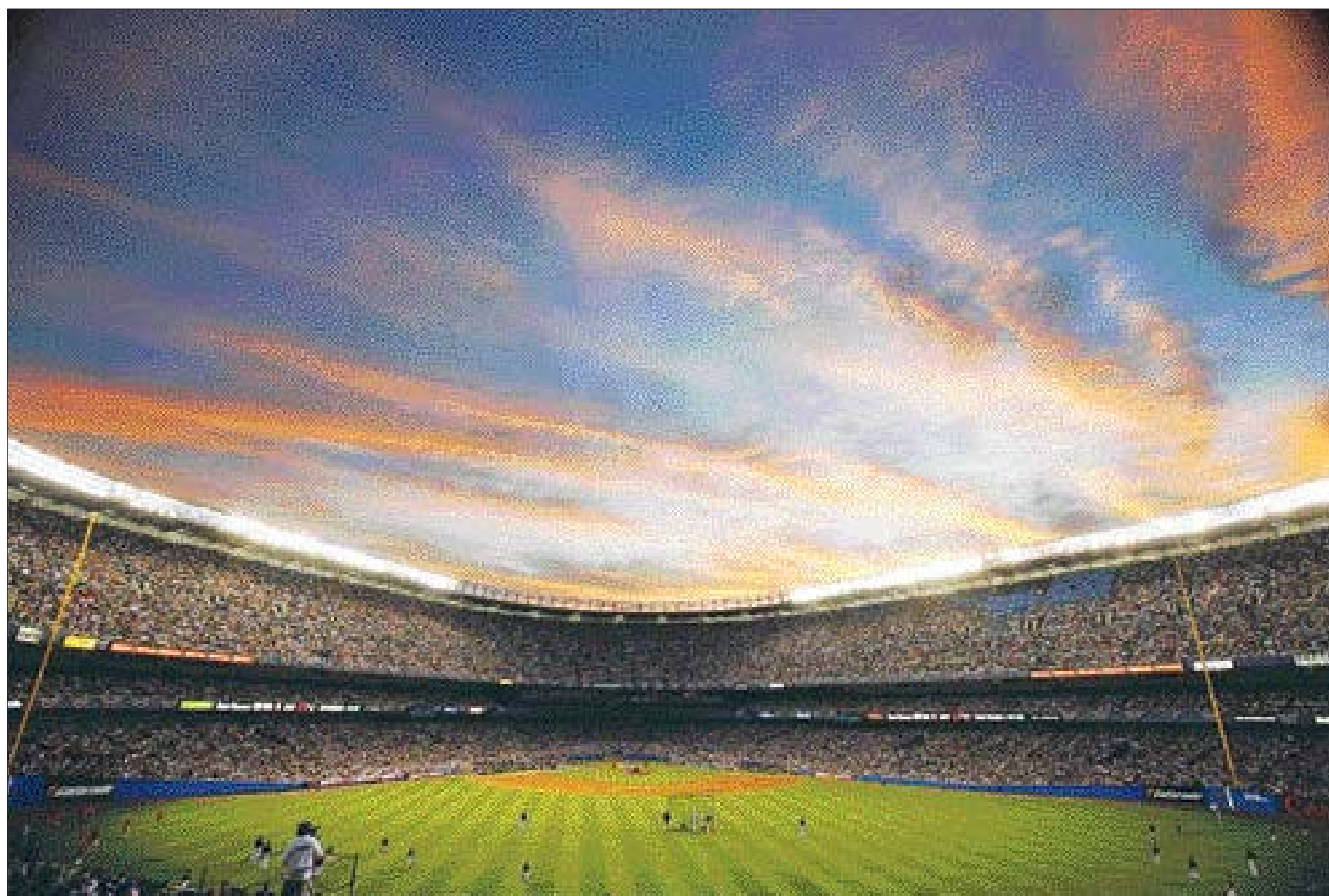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팬더크릭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총 상금 170만달러에 우승 상금 25만5천달러가 걸린 A급 대회다. 1998년 필선(41), 1999년 김미현(31·KTF)이 잇따라 우승했지만 이후에는 한국인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특급대회인 예비암 마스터스 1주 앞에 열리며 상금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2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3위 크리머가 나오지 않아 두터운 선수층을 가진 한국 자매들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건” 최나연(21·SK텔레콤), 제인 박(21),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 박희영(21·하나금융), 민나온(20), 안젤라 박(20·LG전자)에다 고함 한희원(30·힐라코리아)을 비롯해 홍진주(25·SK에너지), 이지영(23·하이마트) 등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위성미(19·나이키골프)도 초청선수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올 시즌 우승컵을 쟁긴 이선화(21·CJ)와 박인비(20·SK텔레콤),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출전하지 않는 가운데 최나연 등 젊은 선수들은 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불꽃 튀는 샷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세리 스테인하워(미국)가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만 아무래도 한국 자매의 경쟁자는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 우승자 청야니(대만)다.



16일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개최될 뉴욕 양키스타디움 전경. 1923년 개장한 양키스타디움은 내년 새로운 구장이 개장하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올스타전을 치르게 된다.

## 뉴욕 양키스 구장 마지막 올스타전

내년부터 최신식 구장에서 경기

1923년 개장...이젠 역사 속으로

부를 벌인다.

NL은 AL의 연승 제지를 놓고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2003년부터 올스타전을 이기는 리그가 월드 시리즈 1,2,6,7차전을 홈에서 치를 수 있는 어드밴

티지가 주어졌지만, 1997년 이후 아메리칸리가 10연승(2002년 무승부 포함)을 달리면서 내셔널리그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선발 자존심 대결은 전반기 10승3패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한 벤 시츠(밀워키·NL)와 12승2패 평균자책점 2.31을 올린 클리프 리(클리블랜드·AL)가 맡게 된다.

마운드에서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LA 에인절스), 조너선 파벨론(보스턴), 조 네이션(미네소타), 마리아노 리베라(양키스)등 철벽 마무리 군단을 구성한 AL의 우세가 점쳐진다.

NL은 58개의 홈런을 합작한 타격 1~3위 존스(타율 0.376)와 푸홀스(0.350), 버크먼(0.347)을 내세워 ‘정교함’으로 AL의 ‘과파력’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한국, 중국과 정상 다툼

췌 주니어배드민턴 혼합단체전

한국이 2008 아시아 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 주아라에서 계속된 4강전에서 홈팀 말레이시아를 3-1로 꺾고 16일 중국과 우승을 다툰다.

대표팀은 첫 게임에 나선 혼합복식 조 김기정-엄혜원이 췌지만 박성민, 배연주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이겨 전세를 뒤집었고 남자복식 김기정-최영우가 2-1로 이겨 승부를 끝냈다.

## 한국, 오만 꺾고 4강 안착

췌 주니어 하키선수권 남자부

남자하키 청소년대표팀이 제6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4강에 안착했다.

한국은 지난 14일 밤(이하 한국시간) 인도 하이데바라드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예선 B조 3차전 오만과 경기에서 11-0으로 대승을 거뒀다. 2승1무로 예선을 마친 한국은 골득실에서 파키스탄에 앞서 조 1위로 4강에 올라 A조 2위 일본과 16일 밤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강문규가 혼자 세 골을 넣었고 서진수(이상 한국체대), 전병진(계산고), 임경주(성주군청)가 두 골씩 보냈다.



- 16일(수)
-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 (내셔널 : 아메리칸) (08 : 50·Xports)
  - ▲2008 휠체어농구 결승전(14 : 10·KBS1)
  - ▲올림픽 축구대표 평가전 (한국 : 과테말라)(19 : 40·KBS2)
  - ▲프로야구 <KIA : 롯데>(18 : 20·Xports), <LG : 한화>(21 : 00·MBCSPN), <SK : 두산>(18 : 00·KBSN SPORTS), <우리 : 삼성>(20 : 45·SBS스포츠)